

초고압선로의 코로나 및 전자기 영향

Corona and Field effects of EHV power lines

김 요희

한국전기통신연구소

1. 개요

전력 수요의 증가는 송전전압의 초고압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저압이 높아지며 따라 송전선로 주위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코로나에 의한 영향과 전자기 영향으로 대별된다. 코로나에 의한 영향은 라디오 장해, TV 장해, 코로나 소음, 코로나 손실, 미오존의 생성 등을 들 수 있다. 전자기 영향은 계획 및 설계 미유도 저항, 전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본 내용은 당 연구소의 800KV급 초고압 전력망 연구를 수행하면서 초고압 선로에서의 코로나와 Field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목표로 그림을 만들었고 실증으로 (345KV)에서의 몇 가지 실험을 행하였다. 앞으로 1990년대에 예상하는 800KV급에서의 이론에 대한 영향을 예측 할 수 있었다.

2. 코로나에 의한 영향

(1) 도체 표면의 전위 경도

코로나 방전은 도체 표면의 저위 경도가 공기의 절연파괴 강도를 초과할 때 발생된다.(표 1) 공기의 절연파괴 강도는 많은 조건의 영향을 받

고 있다. 도체의 크기를 중 가시거 도체 표면의 전위 경도를 감소시키며 코로나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초고압에서 단도체로 도체 표면을 증가시키기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복도체를 사용하고 있다. 복도체의 표면 전위 경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Markt 와 Mengel 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Mangoldt 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E = (18.0 \times 10^6) \cdot Q \cdot \frac{1 + \frac{K_2}{(S/r)}}{N \cdot r}$$

$$K_2 = 2(N-1) \cdot \sin \frac{\pi}{N}$$

E : 도체 표면의 전위 경도

S : 소도체 간격 (cm)

r : 소도체 직경 (mm)

N : 소도체 수

Q : 전전하

(2) 라디오 장해 (Radio Interference) 코로나 방전에 의해 Radio 주파수 대

제작국	R. I. 계산식	비고
Westinghouse (U. S. A.)	$E_{fair} = 48 + 3.5(g_a - 17.5) + 30 \log \frac{d}{3.51} + 20 \log \frac{30.7h}{D^2}$ + 10(1-f) + 40(1-\delta/\delta_o) $E_{foul} = E_{fair} + 24$	$\delta = \text{Relative Air Density}$
Ontario Hydro (Canada)	$E = E_o + A \log \frac{g_a}{18.8} + 40 \log \frac{d}{2.54} + B \log \frac{30.5}{D}$ + 20 $\log \frac{C+1}{C+f}$	$E_o = 34\text{dB(fair w.)}$ - 63dB(foul w.) $A = 146$ (fair w.) - 120 (foul w.)
Shiobara (日本)	$E = [(3.7 g_a - 12.2) \pm 3] + 40 \log \frac{d}{2.53} + 20 \log \frac{h}{D^2}$ - 12(log f)^2 - 17 log f	
B. P. A. (U. S. A.)	$E_{fair} = 48 + 120 \log \frac{g_a}{17.56} + 40 \log \frac{d}{3.51}$ + 10[(1 - \log(10f))^2] + q/300 + C	$q = \text{altitude (m)}$ $C = \text{전자기의 거리감쇠 특성을 고려한 상수}$

(3 KHZ - 30,000 MHZ) 내에 잡음 (Radio Noise)

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 백 microsecond 내의 Pulse 성 협상을 가지고 있고 주 백 MHZ 범위에서 반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수이다. 그리므로

Radio 잡음은 AM 주파수 대 (535-1605 KHZ) 와 TV 주파수 대 (54-88MHZ) 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그리나 RI 값은 매우 불안정하며 도체표면상에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의 개발된 RI 계산식은 표 1과 같다.
(g : 전위경도, d : 소도체 직경, D : 측정거리, f : 주파수)

(3) TV 장해 (Television Interference)

기후 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벽한다. 실제로 옥외에는 수많은 잡음원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TVI 측정이 어렵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TVI는 매우 복잡한 전파 현상이기 때문에 그 해석 및 방법이 어렵다.

G.E (General Electric Co.)에서는 TVI는 RI의 선형으로 보고 계산식을 수식화 하여 B.P.A 는 가장 장해가 큰상 (Phase)으로 부터 TVI를 보정 계산하여 수식화 하고 있다 (표 2)

(표 2)

개발국	T.V.I 계산식
G. E. (U.S.A.)	$TVI = RI - 20 \log \left(f \sqrt{\frac{1 + (R/h)^2}{1 + (15/h)^2}} \right) + 3.2$
B. P. A. (U.S.A.)	$TVI = 10.0 + 120 g / 16.3 + 40 \log \left(\frac{d}{30.4} \right) + 20 \log \left(\frac{75.0}{f} \right) + C$

R : Phase로 부터 거리 (m)
h : Phase의 높이 (m)

C : 보정 계수

(4) 가청소음 (Audible Noise)

도체표면의 전위 경도가 코로나 방전까지 전압이 히가 되도록 설계하면 가청소음을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도체표면의 흄과 차곡, 표면에 부착되는 고충,식물,꽃 가루,물방울등의 변화로 코로나방전까지 전압을 초과하여 국부적인 코로나가 음향에너지로 변환으로써 가청소음을 야기 시킨다.

가청소음의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a. 투전학 계산방법: 선로의 형태와 전압이 특별한 것만 적용 가능하다.

AEP 와 Ontario Hydro 가 산출한 계산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개발국	A. N 계산식 (특정식)
AEP (U.S.A.)	$SL = 108 \log g + 10 \log n + 75.9 \log(d/2.54) + 38 - 94.5$
Ontario Hydro (Canada)	$SL = 100 \log g + 40 \log d + 10 \log D - 77.2$

b. 일반적인 계산방법: 여러 형태의 상배열 전압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표 4)

개발국	A. N 계산식 (일반식)
B. P. A. (U.S.A.)	$AN = 120 \log g + K \log n - 75 \log d - 11.4 \log D + AN_0$
CRIEPI (Japan)	$AN = -665/g - 10 \log D + AN_0$
G. E. (U.S.A.)	$AN = -665/g + 20 \log n + 44 \log d - 10D - 0.02D + AN_0 + K_1 + K_2$
IREQ (Canada)	$AN = 72 \log g + 22.7 \log n + 45.8 \log d - 11.4 \log D - 57.6$

(5) 코로나 손실

송전 선로의 코로나 손실도 도체의 표면전계가 코로나 개시 경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고 도체의 직경, 표면 및 데기 조건 등에 의해 좌우 된다. 에너지의 손실이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Ontario Hydro (Canada), E.D.F(France), G.E (U.S.A.), CRIEPI (JAPAN) 등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식이 있으나 그중 일본의 CRIEPI 의 계산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P_t = \frac{0.021 r^2 N e^{-\alpha r^2}}{123.0} e^{-\alpha r^2} + 1.0$$

여기서 P_t : 선로 단 코로나 손실 (KW/Km)
 r : 소도체 직경

N : 도체수
 E : 최대 도체표면전위 경도 (KV/cm)
 R : 강우량 (mm/h)

(6) 오존의 생성

코로나 방전에 의하여 도체 주위에 오존이 발생 한다. 소량이지만 10ppb 에서 남세가 나고 9-120 ppb 에서 식물에 영향을 주고 100-300 ppb 에서 두 시간 노출하면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며 불쾌감을 유발한다. W.H 에서 개발한 식이 있다.
(식. 생략)

3. 전자계 영향

초고주파 송전선은 전자장을 발생시키고 유도전압 유도전류 등의 전기유도 현상과 함께 의한 생물학적 영향등의 문제를 놓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충전선로의 설계에 주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KEPCO의 345KV 선로에서 치표면의 전계강도 저저 유도전류, 자계강도 등을 실측하였고 보로우 텀벌과 와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가. 치표면의 전계 강도

전압과 선로의 기하학적 위치가 결정되면 Maxwell 전위 계수를 이용하여 전학가 구해지고 전학가 정해지면 일의정의 전계강도가 계산된다.

3상 송전선로에서의 전계는 각상으로부터 전계가 합성되어 다음과식으로 표시되어 일반적으로 타원을 그리며 주기적으로 회전한다.

$$\vec{E} = E_{tr} + jE_{sr} \hat{x} + (E_{sr} + jE_{st}) \hat{y}$$

$$= E_r \cos(wt - \theta_x) \hat{x} + E_s \cos(wt - \theta_y) \hat{y}$$

최근에 입수한 Field Meter(M-III)에 의해 현장에서 측정한 거리별 전계강도와 컴퓨터에 의해 계산한 값과 비교하면 잘 일치하고 있다.

나. 정전유도 전류

송전선로 하의 저장속에 접지된 상태로 서 있는 사람에 정전유도 되어 흐르는 충전전류는 사람이 들어 서기 전의 균일한 전계강도 E 에 비례하고

사람의 크기(h)의 제곱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현장 측정 Data 참고)

$$I = 5.4 h^2 \cdot E \cdot 10^{-9} (A)$$

다. 자계 강도

자계도 전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점에서의 합성 자계 강도는 일반적으로 타원을 그리며 회전 벡터를 갖는다.

(현장 측정 Data 참고)

이상에서 과거에서의 실험식과 이론식을 비교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식을 발췌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도체표면의 전위경도는 4도체경우가 2도체보다 평균 5 KV/cm 낮다.

·RI는 선로에서 60m 떨어진 곳이 대략 30db, TVI는 -9db 있고 2도체 경우는 평균 20db 높다.

·AN은 60m에서 대략 25db, 2도체경우는 평균 15db 높다.

·코로나 손실은 강우도에 따라 증가하고 도체 직경의 증가에 따라 금격히 감소하고 2도체 경우는 평균 7 KW/km 높다.

·오존의 생성량은 최대 5 ppb로써 무시할 정도의 미량이다.

·전계강도 측정치는 계산치와 거의 일치하였고 4도체의 경우 평균 7KV/m 높았다.

·정전유도전류 자계강도의 측정치도 계산치와 거의 일치하였다.